

이슬성신이 완성의 은혜요 영생을 이루는 은혜

露の聖神が完成の恩恵であり永生をなす恩恵

노 세에신가 칸세에노 온 메구미데 아리 에에세에오 나스 온 메구미

「命の木の實」とは聖書の言葉であり、聖書の言葉は靈的な言葉である。だから、「命の木」になる實も靈的な實であり、靈的な實は靈を指します。従って「命の木の實」は永生の靈であって、死の靈は「命の木の實」になることが出来ない。‘생명나무의 과일’은 성경 말이요 성경 말씀은 영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과일도 영적인 과일이나까 영적인 과일은 영을 가리킨 것입니다。따라는 ‘생명나무의 과일’은 영생의 영이지, 죽음의 영은 ‘생명나무의 과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聖靈に生まれ變わってこそ救われる」と聖書に記されているので、「命の木の實」は聖靈、まさに永生の靈である。ところが、まことの聖靈とは、勝利者が現われて人びとに注ぐ恩恵をいうのである。‘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생명나무의 과일’이 성령, 바로 영생의 영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령이란 이긴자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부여주는 은혜를 말합니다。

勝利者の靈が聖靈であり、勝利者が現われる以前に用いた聖靈という言葉は全て悪魔のトリックの言葉である。まことの聖靈ではないという言葉である。 이긴자의 영이 성령이지, 이긴자가 나타나기 전에 사용한 성령이라는 말은 전부 다 마귀의 속임수의 말입니다。 진정한 성령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だから、コリント人への第1の手紙13章10節に「完全なものが 現われたら、不完全なものはずたれます」と記されている。この言葉を見れば完全きものが来るのが分かりますね、完全きものとは全知全能の靈を言うのです。全知全能の靈がまさに完全きもの靈であると言うのです。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온전치 못한 것은 폐하리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란 전지전능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영이 바로 완전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だから、全知全能の靈はまことの救い主が持っているのです。まことの救い主が全知全能の靈を持ってこの世の中を地上の天國に開關させるのです。 그러므로 전지전능한 영은 진정한 구세주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세주가 전지전능한 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상의 천국으로 개혁시키는 것입니다。

全知全能の能力がなければ、共産主義を無くすことは出来ない 전지전능한 능력이 없으면 공산주의를 없앨 수 없다

皆さんが知っているように、救い主である私が「五大公約」を宣布しました。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세주 되는 이 사람이 5대 공약을 했습니다。

まず、世界の共産主義を無くすと言いましたね、世界共産主義がなくなりました。 共産主義とは人の思想を指しますね、人の理念をいうのです。 먼저, 세계의 공산주의를 없애겠다고 했죠. 세계의 공산주의가 없어졌습니다。 공산주의는 사람의 사상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이념을 말합니다。

共産主義の理念を共産主義であると言い、ただ単に人の考えを共産主義であるとは言えない。 우리는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것이지, 단지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だから、神様である救い主の身分が共産主義者の中に入って共産主義の理念を除去してしまっただから、共産主義の理念が消えて共産主義者達がすべて「私 anymore 共産主義がいやだ」と言ったのです。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되는 구세주의 분신이 공산주의자 속으로 들어가 공산주의 이념을 뿌리째 뽑아서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념이 없어지고 공산주의자들이 모두 다 “나는 이제 공산주의가 싫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共産主義者が「共産主義が嫌い」と言えば共産主義が存立出来ないことですね、このように世界の共産主義を無くしてしまっただのです。 공산주의자가 공산주의가 싫다고 말하면 공산주의가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의 공산주의를 없애 버린 것입니다。

救い主の身分が人の心の中に入ってこの世の中を開關する 구세주의 분신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이 세상을 개혁한다

そのように救い主が自由自在に人の中に入りする身分ではたらくということが、分かるでしょう。私は自由自在に人の中に入り出来ます。 그렇게 구세주가 자유자재로 사람 속에 들랑거리는 분신으로 일한다는 것을, 알겠지요。 이 사람은 마음대로 사람 속에 들랑거립니다。

皆さんの心の中にも私の身分が入っていったのです。私が獄屋に入って肉身は離れていても、救い主の身分が皆さんの心の中に入って皆さんを率いて導いたのです。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사람의 분신이 들어가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옥중에 들어가 육신은 떨어져 있을망정, 구세주의 분신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여러분을 이끌고 인도했던 것입니다。

だから皆さんが祭壇に熱心に通っただのです。救い主が率いなければ一人も祭壇に通う人がなっただのです。 그래서 여러분이 제단에 열심히 나왔던 것이지, 구세주가 이끌지 않았다면 한 명도 제단에 나올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當時、私が獄中生活をする時には露が降らないのに露を降らすと皆さんを騙して獻金を集めて祭壇を建てたから、完全に詐欺であるなどと言って私を獻金詐欺で處罰までしましたのです。 당시, 이 사람이 옥중살이 할 때에는 “이슬성신이 내리지 않는데 이슬성신을 내린다고 여러분을 속여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교회를 지었으니, 이긴 완전히 사기다.” 해서 이 사람을 헌금 사기로 처벌까지 한 것입니다。

しかし、皆さんは私が獻金詐欺を行なったとは考えなかったから祭壇に熱心に通っただのですね、結局、これは勝利者が勝ったと言うことになるのです。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헌금사기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단에 열심히 나왔던 것이죠。 이것은 결국 승리자가 이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だから、「勝利者、正道令が最後には勝つ」と豫言書・格羅維鐵錄には記録されているのです。だから、魔鬼の世である人間の世を無くしてしまい、人びとを神様に作り變えて神様の

世を作ってしまうのです。 그래서 ‘승리자, 정도령이 마지막에는 이긴다’라고 예언서·격암유록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상이 되는 인간의 세상을 없애 버리고, 인간들을 하나님으로 바꾸어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救い主が皆さんを神様に作るのである。皆さん自身が立派であるから恩恵をたくさん受けて神様になるのではない。 구세주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나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救い主は再創造主の神様です。だから、皆さんを再び神様に創造するのです。皆さんが永遠に生きる永生體で世を生きるのです。 구세주는 어떤 존재이나 하면 재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으로 창조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무궁토록 사는 영생의 몸으로 세상을 살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その世は時間も空間もないのです。その世はもう千年万年が一日のように速く過ぎます。だからその世はあまりにも快樂が溢れるので、あまりにも嬉しく、あまりにも楽しくて時間が経つのも分からないのです。 그 세계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그 세계는 이제 천년만년이 흘러도 이제 바로 하루가 간 것 같이 시간이 빠르게 갑니다。 그래서 그 세계는 너무나무 쾌락이 넘치는 고로 너무나무 즐거운 고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露の聖神でこそが永生を得る恩恵になる 이슬성신이야말로 영생을 얻는 은혜가 된다

神様の恩恵というのは今まで全く無かった。キリスト教(徒は創始期から火の聖靈の恩恵があったと偽りをいうが、それは恩恵ではない)。 하나님의 은혜란 지금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초창기부터 불의 성령의 은혜가 있었다고 우기지만,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永生を與えることが恩恵であって永生を與えなければ恩恵とはならない。また、露の聖神が恩恵であり、露の聖神ではない火の聖神とか、生水の聖靈とかは恩恵ではない。露の聖神でこそ完成の恩恵であり、永生を成し遂げることの出来る恩恵である。 영생을 주는 것이 은혜이지 영생을 주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또한 이슬성신이 은혜이지 이슬성신이 아닌 불의 성신이라든가, 생수의 성령이라든가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슬의 성신이야말로 완성의 은혜요, 영생을 이룰 수 있는 은혜입니다。

だから、キリスト教は恩恵がない宗教ですね、恩恵がない宗教は宗教とは言えない。だから、皆さんは救い主を通じてこそ恩恵を受けるようになっているし、救い主を通じてこそ永生を得るようになっていることを知らねばならない。 그러므로 기독교는 은혜가 없는 종교입니다。 은혜가 없는 종교는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구세주를 통해서만 은혜를 입게 되고 구세주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だから、救い主に因って、皆さんが再創造され、人間が神様になるのです。これを指して復活と言う。 그러니까 구세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재창조함을 받아, 사실상 인간이 하나님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死ねば再び生きることが出来ない。ヨブ記14章10節に「人が死ねば消えうせる。息が絶えればどこにおるか」とあり、イザヤ書26章14節に「死人は生き返りません。死者の靈はよみがえりません。」と記されている。 죽으면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욥기 14장 10절에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었는가’라고 하고, 이사야서 26장 14절에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3년6월20日 勝利者の説教

선(先) 중(中) 말(末)중 중입에 들어 정도령을 따르면 선경(仙境)에 들어가리라

無用出世智將 무용출세지장

二人横三有一人 이인횡삼유일인
雙七向面 日義眞人 쌍칠향면 왈의진인
可女生一人 가녀생일인
鷄籠開國 起功之臣 계룡개국 기공지신
十人生産 一男一女 십인생산 일남일녀
辰巳眞人 男女不辨 진사진인 남녀불변

이인(二人)은 인(仁)의 파자요 횡삼(横三)은 천(川)이니, 인천(옛날의 인천은 부평 부천을 포함함)이다. 쌍칠향면(雙七向面)은 칠(七)자 두 개를 마주하면 여(女)가 된다。 인천 부평 부천에 한 분이 계시는데 영적 여자이나라. 이 분을 일러 의인이요 진인이나 가히 영적 여자(영적 언파)로 오시나라. 그분은 계룡국 즉 지상천국(地上仙國)을 건설하시는 분으로 하늘의 사람 일남일녀(一男一女)를 영적으로 해산하여 키우시나라. 모두 진사진인으로 세상의 남녀를 따지지 않는다。

牛性在野 非山非野非野仁富之間
우성재야 비산비야비야인부지간
聖之出世三有辰巳入於十勝
성지출세삼유진사입어십승
三時中取 辰巳午未先動之反
삼시중취 진사오미선동지반
申酉戌亥中動之生 신유술해중동지생
寅卯辰巳未動之死 인묘진사말동지사
巳午未樂堂興盡悲來 사오미리당흥진비래

一喜一悲 苦盡甘來 일희일비고진갈래
天呼萬歲 천호만세
一日三食 飢餓死 일일삼식기아사
三旬九食 不飢生 삼순구식불기생

우성(牛性)의 구세주 하나님 정도령은 산도 아니요 들도 아닌 초야에 묻혀 계시나라. 들도 아닌 인천 부평 부천 사이에서 성인(聖人=정도령)이 세상에 나오게 되며 세 분의 진사진인을 거쳐 십승(十勝) 즉 하늘의 세계에 들어가느니라. 때는 선입(先入), 중입(中入), 말입(末入)의 삼시(三時)가 있으니 반드시 중입(中入)을 취해야 하느니라. 선동(先動)은 진사오미(辰巳午未)에 들어가는 것인데 진리를 배반하여 망하게 되고 중동(中動)은 신유술해(申酉戌亥)에 들어가서 정도령의 진리를 실천하여 영생을 얻으며 말동(末動)은 인묘진사(寅卯辰巳)에 들어가는 것으로 때가 늦어 죽으리라。

따라서 중동(中動)으로 정도령의 ‘사람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배워 실천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사오미(巳午未)에 이

러려 집집마다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리라. 즐거움 일이 지나가면 슬픈 일이 닥쳐오는 법이니 일희일비(一喜一悲=기쁜 일과 슬픈 일이 번갈아 일어나)로다. 정도령을 끝까지 믿고 따른 사람들은 고생(苦生)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영생의 대복(大福)을 받게 되어 하나님 만세를 부르리라. 세상의 곡식은 하루 세 끼를 먹어도 마지막엔 굶어 죽지만 하늘의 양식인 감로혜인은 한 달에 아홉 번만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영생을 하게 되느니라.

賽六五(一) 새육오

先擇牛之開目不示 선택우지개목불시
開耳不聽貪慾之人 개이불청탐욕지인
不知世事之變易부지세사지변역
十勝之人三豐之穀 십승지인삼풍지곡
三年恒食不飢長生 삼년항식불기장생
先擇牛文世數恒食不飽飢渴 선택우문세곡항식불포기갈
弓乙之人無愁恒樂 궁乙지인무초항락
궁을지인무수항락

하나님을 먼저 택한 자(선입자先入者)는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탐욕스런 자로서 역(易)의 이치에 따라 세상사가 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심층지인 정도령의 화우로(火雨露) 삼풍혜인의 하늘 곡식을 삼년간 꾸준히 먹으면 배고픔을 모른 채 장생(長生) 하리라. 먼저 하나님을 택한 탐욕스런 자들은 세상 곡식을 늘 먹어도 배고픔을 느끼고 목이 말라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나라. 심승 정도령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격정 근심 없이 늘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리라.

假牧從民不免羞恥 가목종민불면수치
兩白之人咏歌踏舞 양백지인영가답무
不吠之狗切齒痛歎 불폐지구절치통탄
三豐之人入於仙境 삼풍지인입어仙境
獸從之人棄於火獄 수종지인정어화옥
善行之人歲歲彈琴 선행지인세세탄금
惡行之人年年彈胸 악행지인년년탄흉
聖山聖地仁富之出 성산성지인부지출
有知者生無知者死 유지자생무지자사

심승 정도령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기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출 때 거짓 목자를 따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이며 거짓 못하는 개처럼 이를 갈며 통탄 하리라. 삼풍 혜인의 주인공 정도령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선경(仙境)에 들어가고

집승과 같은 거짓 목자를 따르는 사람은 지옥 불 구렁텅이에 빠지리라. 선행(善行)을 한 사람은 세세(歲歲)토록 선경에서 거문고를 뜯으며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악행(惡行)을 한 사람은 해마다 가슴을 치며 통탄하리라. 정도령이 계시는 성산성지(聖山聖地)는 인천과 부평 부천 사이에 있는데 이를 아는 자는 살고 모르는 자는 죽으리라.

嗷呼三呼三災不遠日 차호삼호삼재불원일
覺者其間幾何人 각자기간기하인

美哉仙中兮 미재선중혜
哀哭之聲永不聽之惡死 애곡지성영불청지악사
幼兒無不滿壽落胎之死 유아무불만수락태지사
百歲之上壽木人 백세지상수목인
神屋別天地 신옥별천지

아! 슬프고 슬프도다. 하나님이 세 번씩이나 탄식하는 삼재(三災) 팔난(八難)이 머지 않는 날 닥치는데 그 때를 깨달은 자 몇 이런가? 아답답도다. 선경세계! 잘못된 죽음으로 애통하게 곡하는 소리를 영원히 듣지 못할 것이며 아기가 수명을 채우지 못하거나 낙태(落胎)로 인하여 죽는 일이 없을 것이며 감(陷)나무 정도령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백세이상의 수명을 누리니 신선이 사는 그세계는 별천지로다。*

박영하 / 고서연구가 010-3912-5953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승리신문은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div><div></div>승리신문</div>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윤봉수 편집인 박태선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몸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홈페이지 www.victor.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